

# 대학의 교수 - 학습 : 과제와 전망

전 성 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1. 들어가는 말 : 21세기의 대학교육 환경

21세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징후를 보이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교육의 모습도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 세기의 교육과 문화적 특성의 대부분은 오늘날 이미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1세기에 있어서 국가간의 국력은 더욱 차이가 나고 서열화될 것이며 투명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총체적 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력에 대한 인식도 점차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고등교육 인구를 늘리는 것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21세기에도 국가간에 합종연횡의 협조적 공존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정치적·경제적·문화적·교육적인 면에서 국가간의 경쟁관계도 또한 엄연한 현실이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또한 교육의 제 분야에 있어서 빠른 변화와 분야 간의 다양한 격차 현상이 발견될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만을 놓고 볼 때에도, 발전되는 분야와 지체되는 분야 간에 많은 격차가 나타날 것이다. 한 국가 내에 있어서나 국가간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제도와 교육요소간의 발달격차는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을 요구

하게 될 것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인증제도는 교육분야에서도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 대해서는 점차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빈번한 국가간 이동은 자연스럽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단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아마도 사회 전반에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로 가는 이행정도는 국가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화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의 정보화 대책이 바로 컴퓨터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아마도 지적교육, 영재교육 및 창의력교육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영재들이 법대, 경영대 등 일부 영역에 집중적으로 진학했으나 우리의 낙후된 정치현실이나 IMF체제를 자초한 경제현실 등으로 볼 때, 그동안 이들 영역에 대한 교육이 타당했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에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개발하느냐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급세기에 우리는 거의 공백과 다름없는 지적 기반에서 외국의 선진지식을 흡수하는 데에만 급급해 왔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세기에도 그러한 교육을 답습한다면, 우리는 결국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와 지적 산물이 없다면, 우리는 세계문화를 이끄는 국가군에는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를 지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인 지식의 구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간에 지력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국가간에 교육 경쟁이 치열해 진다는 것과 같다. 어느 나라가 더 유능한 국민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의 문제와 직결되고 특히 가르치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까지 교육개혁 하면 크고, 눈에 보이는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사회 전 분야에서 교육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세밀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될 것이다. 그것은 학교교육뿐 아니라 성인교육, 공무원교육, 군인교육, 취미교육, 직무교육 등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전 분야에서 요구될 것이다.

이와 같이 거시적(macro)인 변화에서 미시적(micro)인 변화로, 가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변화로의 양태변화는 그대로 교육에서 제도나 시설보다는 효율성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더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이라면 웅장한 건물과 넓은 캠퍼스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많은 대학들이 이와 같은 외형적인 것에 우선적인 투자를 해 왔다. 그리고 진정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에는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세계 대학의 개혁추세를 요약한다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이라는 오래된 개인영역에 대하여 대학 당국

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영역에 대하여 대학 당국이 간섭을 한다는 말이라기 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심을 더 기울인다는 뜻이 된다.

## 2. 한국 대학의 교수-학습 상황

한국의 고등교육체제는 학생수라는 외형적인 조건만을 놓고 볼 때는 미국,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육화가 실현된 체제이다.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에 비례하여 보거나, 연령대에 비추어 본 고등교육기관 등록학생수를 보아도, 한국의 고등교육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들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구상에서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고등교육의 기회가 이처럼 신장된 예는 한국 외에는 없다. 해방 당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은 8,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오늘날에는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를 말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고등교육의 기회확장은 경제성장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우선 대학에 대한 투자가 공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영세한 사립재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것도 대부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한국 특유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항상 대학진학 희망자는 대학 정원보다 몇 배나 더 많아서 대학 운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좌판만 차려 놓으면 장사가 되는 상황과 비슷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대도시 지역의 상황은 아직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간에 대학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건물, 기념관 등에는

투자가 되었지만 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교수를 뽑는 것 외에 별로 투자된 것이 없는 형편이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대한 투자는 그 투자효율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질은 이미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성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정성을 기울여봤자 소득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 경영자는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것은 당장에는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학 당국이 이 영역에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투자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교육의 질은 우수한 교수를 뽑아 놓으면 되는 것이지 달리 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대학 운영자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우수한 교수를 충원해 놓으면 대학의 질은 상당 부분 보장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대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이것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 지난 50여 년 간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즉 교육방법의 영역은 괄목할 만한 이론적·실제적 발전을 하여 왔으며, 이것은 대학교육의 상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가르치는 전문적인 일에 대하여 교수 개인이나 대학 당국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제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은 교수에게 일임된 사항으로서 대학은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대학의 불관여 원칙'은 크게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에게 개인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에게도 개인차가 있으며, 특히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그 폭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넓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수에 따라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능력까지를 포함시킨다면 개인차의 폭은 더 커질 것이다.

교수는 특정한 영역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일 뿐 아니라 그것을 잘 가르치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교수가 연구소의 연구원과 다른 점은 그가 가진 지식을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공유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학습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며,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능력은 교수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교수를 신규로 채용할 때 연구능력은 검토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르치는 능력은 대학교수의 자격요건으로서 그리 중요하게 검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학에 채용된 후에도 정년퇴직 할 때까지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교수에 일임한 채 대학 당국은 관여하지 않는다.

최근에 '강의평가제'라고 해서 많은 대학에서 한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에 의해 교수의 강의가 평가되고 있지만, 이것은 많은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히려 대학은 교수들이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0여 년 동안에 정보공학, 교육공학 등 전달시스템과 매체의 발달은 눈부신 바 있으나, 우리의 대학교육은 이들을 외면한 채,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수용적 방법' 일색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수가 소화한 내용을 수십,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동시에 전달하는 것은 '비용-효과'라는 점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만들어져 있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지만, 학생들 간에 있어야 하는 인간적인 접촉을 통한 인격형성이나 고뇌를 통한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데에만 익숙하게 되면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내는 자기조정능력은 키울 수가 없게 된다. 일본이 우리보다 수용하고 모방하는 데에는 앞서 있었으나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일본이 과연 세계문화에 무엇을 기여 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대답할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산업생산과 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팽창에 힘입어 부를 축적하였으나 역시 교육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에 21세기에도 계속 세계를 이끌어 가는 국가가 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교육 자체가 '전달 - 수용적'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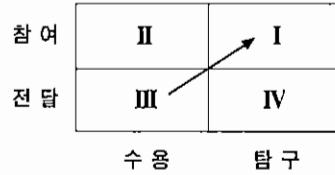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도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 이르러서는 개혁의 모습을 보기가 매우 힘들다. 대학은 어떻게 보면 개혁을 거부하는 철옹성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 대학은 자급자족형 농가와 같아서 전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변화란 곧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이러한 교육을 탈피해서 변화를 이끌어 가는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3. 발전의 방향과 방법

#### (1) 전달 - 수용적인 교수 - 학습에서 참여 - 탐구적인 교수학습으로의 진행

우리의 대학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해 주고 학생들은 그것을 수용하는 양태를 지금까지 지속하여 왔다. 유능한 교수란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유능한 학생이란 그것을 훼손됨이 없이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가 300~400년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의 과정을 고작 50여 년 동안에 이룩하다 보니 많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교수는 전달하고 학생은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양성되어 40~50년대와 같은 지적빈곤현상은 없



〈그림 1〉 전달 - 수용적인 방법에서 참여 - 탐구적인 방법으로의 진행

고, 발전을 위한 기반은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달 - 수용적 방법으로는 21세기에 도래할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고, 세계지성사와 문명에 기여할 수도 없다. 전달 - 수용적 방법은 앞선 것을 따라잡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데는 효율성이 낮은 방법이다.

이제 참여 - 탐구적인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대량전달과정에서 소홀히 되었던 인간과 인간의 면 대 면 접촉,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동학습, 발견과 탐구학습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탐구 과정이 원래의 목적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에서도 실험실습과 탐구과정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면, 교수1인당 학생수가 지금보다도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교수 방법의 적용을 위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운영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2) 노동집약적인 교수 - 학습에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교수 - 학습으로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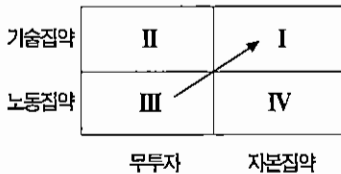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들은 아름다운 캠퍼스에 서양을 모방한 건물들을 짓는 데 열중하여 왔다. 퇴임하는 총장의 업적은 건물을 몇 개나 지었는가로 요약되고, 그 건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만일 어떤 제약회사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아름답고 깨끗한 공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함량미달이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분명

사람을 키우는 대학은 제약회사와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교육 그 자체보다는 교육외적 환경에 더 신경을 써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은 교수에게 완전히 일임되어 있고, 교수는 '자기 맘대로 가르치는 것'을 교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열성을 가진 교수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피해는 오로지 학생 몫이 된다.

교수가 전공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고, 표현력이 뛰어나다면 노동집약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클래스는 교수 한 사람에 50명 이상의 학생이 노동집약적으로, 칠판과 백묵 외에는 별로 투자가 없는 교수 - 학습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림 2) 투자가 없는 노동집약적 상황에서 투자가 활성화된 기술집약의 교수 - 학습체제로의 진행

21세기 대학의 클래스는 체제적으로, 기술 집약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술이라 함은 공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기술, 과제개발 기술, 평가기술 등 연성기술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수는 혼자 준비해서 자족적으로 클래스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개발한 수업체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교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일 뿐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수업의 전문가로 성장해 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경영자의 대학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 실험과 연구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대학 존립의 핵심요소인 교육과정, 교수 - 학습 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3)자폐적인 교수 - 학습에서 정보화 된 교수 - 학습으로의 진행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특별한 미디어 없이 맨손으로, 자폐적인 교수 - 학습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클래스는 조그마한 왕국과 같은 것이어서 교수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어느 누구도 수업에 대하여 교수가 원하지 않는 한 관여할 수 없으며, 관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수는 그 시간에 배당된 교육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언설도 예사로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예고 없이 휴강을 하는 때도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90년대에 들어와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

대학종합평가의 평가항목에 교수계획서와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항목이 들어가자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러한 요소를 채택하였다. 간략한 것이기는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면 교수계획서가 배포되고, 휴강을 할 상황이 생기면 보장을 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에 의한 강의 평가도 받는다. 예전에 비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폐적인 수업환경이 변화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21세기형 교수 - 학습환경은 개방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 -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을 꼭 교실에 한정시킬 필요도 없다. 교수는 나 혼자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개발된 PSI라는 수업체제에서는 한 학기 먼저 학습을 끝낸 proctor라는 학생 보조자가 교수를 대행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팀-티칭, 여러 가지 협동학습형태, 자료탐색을 전제로 하는 개인별 프로젝트, 개별화 수업체제의 적용 등은 분명히 개방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에서 우리는 미디어 및 통신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미디어와 컴퓨터, 그리고 통신메커니즘의

통합은 우리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좀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이 정보화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투자와 국민의 정보마인드의 확대에 따라 학교에서도 점차로 정보화를 수용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은 리포트를 E-Mail을 통해 교수에게 보내며, 교수는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또한 E-Mail을 통해서 한다. 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며,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토론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정보화의 추진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사이버 대학이 현실화되어 있고 실험적인 과목이 올려져 있지만, 그 효율성에 대한 검증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 교수의 머리와 입에 의존하는 자폐적 환경에서 통신매커니즘이 활용되는 개방적 환경으로의 진행

분명한 것은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대학에서의 정보화 추진은 21세기에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세기에도 교수직을 수행할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러한 대학환경의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4)관행적인 교수 - 학습에서 특성화 및 세계화의 요구가 충족되는 교수 - 학습으로의 진행

한국은 겨우 반세기만에 유럽의 선진국을 모두 제치고 고등교육 대중화를 실현하였다. 물론 교육의 질이라든지 취업의 기회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

제가 많지만 어쨌든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면에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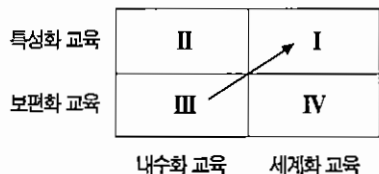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학이 늘어나다 보니 대학 교육이 지나치게 보편성을 띠게 되었고, 대학 간, 학과 간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대학교육이 대학 특유의 특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연장선 위에서 분화된 감이 있다.

대학이 특성화되고 학과, 학부가 특성화된다는 것은 자유경쟁 사회에 있어서 상품의 차별화와 관련이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키워내기 위하여 특성화 전략은 바로 대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의 인력채용 조건은 그가 무슨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보편적인 인력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사회의 인력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제로 인력을 양성해 가야 할 것이다.

모든 대학에서 사회적 수요와 상관없이 늘어놓고 있는 전공도 더욱 간략하게 조정을 하고, 교과목은 기본 공통 교과목을 패키지화해서 컴퓨터를 통한 개별화 수업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track)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더욱 특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는 어느 대학도 21세기에는 전 분야에 걸쳐 패권적인 우월성을 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국제화·세계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국제화·세계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국제화에 성공하는 데에는 어학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학교육 그것 자체가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국제화·세계화는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학사행정의 틀을 세계적 기준에 맞추는 일과 함께 한국의 독특한(Korea-specific) 지식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보면, 그것은 한국적인 특성화 교육이 될 것이다. 어느 나라의 고등교육체제이든 간에 그 나라의 고등교육 발달의 역사성에서 오는 특수성이 있다. 대체로 유럽의 대학들, 특히 영국과 영연방 국가의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합류하려 하고 있다.



(그림 4) 관행적인 교육에서 특성화와 세계화의 요구가 충족되는 교육으로의 진행

광복 이후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국가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팽창하여 왔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앞장 서 있지만 특성화 교육과 세계화 교육이란 점에서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어느 대학에서든 그저 그러그러한 졸업생을 많이 배출해 내었지만, 정작 특정한 전문분야나 국제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졸업생은 많이 배출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학문영역, 연구영역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편성, 교수-학습체제의 구안, 평가전략 등에서 특성화와 세계화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대학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맺는 말

대학의 변화에서 교수는 항상 그 변화의 중심에서 있게 된다. 교수는 대학방침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연구에 대한 압력과 수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갈등상태에 놓이게 된다. 최근에는 대학평가에서 교수의 연구업적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교수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물론 연구하고, 가르치고, 사회봉사 하는 것이 조화

를 이루면 좋겠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 어느 것도 충실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필자는 대학교수의 역할이 연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교육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후자 쪽을 택하는 입장이다.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 현실이 서구보다도 오히려 더 대중화를 이루었고, 또한 대부분의 대중적인 대학에서 소규모의 연구중심대학과 똑같은 연구실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운영경비의 거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개선보다 연구가 우선이라는 것은 지적인 사치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정부와 특정 기업체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소규모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특성화를 잡아가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의 확대 이외에는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수-학습분야의 낙후가 가장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일은 교수의 역할에 있어서 근원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교수-학습상황에서의 교수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로 지식소유자의 역할이다. 교수는 보편적인 지식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그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지식 영역에서 낙후되지 않기 위하여 계속 탐구한다. 특히 교과적 전문지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가치를 선택하고 조직한다.

둘째로는 지식제시자의 역할이다. 많은 교육방법이 있지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보편적인 교육방법은 학급에서의 직접적인 교수, 즉 강의이다. 질문법, 토론, 시청각매체의 활용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교수가 직접 지식을 조직하고 배분하는 강의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지식관리자의 역할이다. 지식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지식을 직접 제시하는 일과 함께 그것을 조정하고,

가공하고, 학생에게서 나타난 변화를 해석하는 등 가르치는 것 외의 다른 기능도 요구되는 역할이다. 개별화 수업 체계를 개발 적용한다든지,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수-학습체제를 적용하는 것 등은 단순히 지식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지식관리의 기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학습 집단의 구성이라든지 평가를 통해 학생을 판단하고 적합한 교육적 처치를 하는 것 등은 관리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는 멀티미디어가 더욱 보편화되고, 컴퓨터의 기능확대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웹-기반 개별화 수업이 더욱 보편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제 재택근무와 재택학습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교수는 지식소유자와 지식제시자의 역할에서 점차 지식관리 전문가로 역할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교수는 이제 전공분야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전공분야를 매개로 한 교수-학습의 전문가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에 대한 성급한 개혁정책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는가는 우리의 짧은 신교육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정부주도의 정책적인 개혁에 앞서 교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며, 대학 당국은 대학 경영에서

교수-학습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대학에서 수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교수의 열성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21세기에는 이 분야에 누가 먼저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학교위상과 교육의 효율성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내의 교수-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수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대한 대학 내 전문가를 양성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 등은 앞으로 대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다. **전성연**

#### 전성연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대학원에서 수업체제를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 공공정책학회장과 교육과정연구회장을 역임하였다. 고려대 입시관리 위원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업」, 「교육과 컴퓨터」 등이 있고, 2권의 역서와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